

시론



박노식 시인·시연영원장

모든 산과 들이 한 치의 변화도 없이 녹음뿐이다. 눈을 깜빡이는 순간마다 몸에 초록 물이 들어서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흰 벽에 기대고 서서 통구이처럼 몸을 굴리면 흰 벽 군데군데 초록 물감이 배어 어느 이름난 추상 화가의 기괴한 한 폭 그림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한여름은 구름의 세계다. 먹구름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면서 잠깐 사나워지지만 흰 구름은 유난히 희고 커서 지상 가까이 내려 오기를 좋아한다. 그만큼 흰 구름은 여름내 상상력을 증폭시켜준다.

어느 날은 긴 잠자리재로 허공을 휘젓듯 예쁜 구름을 낚아채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긴 막대기의 쫄쫄 착한 구름을 아래서 위로 사뿐히 걷어 올리고 싶어질 때가 있다.

여름 산책은 행이 크고 동그란 농부 모자를 쓰고 나간다. 물론 그늘을 따라 걸지만 모든 길이 그늘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필자의 산책은 주로 농로를 따라 걷는데 반환점에 이르르면 아주 큰 저수지를 만난다.

저수지 옥 입구에는 느티나무가 있어서 그 아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노라면 저수지 수면 위로 펼쳐지는 아주 신비한 현상을 발견하곤 한다.

여름, 흰 구름과 물에 대한 단상

어느 오후의 일이다. 큰 물개구름이 서서히 풀썩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순간 깨진 바가지 모양으로 산산조각이 나뉘어 떨어지면서 조각구름이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구름이 아주 불품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 깨지는 거, 터지는 거, 부서지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파행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해서 씩씩했다.

또 어느 오후에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떨어져서 놓고 있는 조각구름을 보았다. 그들 중에 유독 두 구름만이 부화처럼 아름답게 몸을 꾸미고 커져더니 서로 가까이 다가 하나가 되면서 몹시 큰 물개구름이 되었다. 수면을 내려다보면 필자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지만 기뻐했다. 사랑의 마음은 이처럼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힘이 작용한 것이므로 부디 파행이 없기를 바랐다.

여름날의 흰 구름만 보면 그날 그때 보았던 구름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한편으로는 아름답지만, 또 한편으로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 삶이 조심스러워진다.

휴일에는 일없이 마당으로 나와 해바라기처럼 허리를 꿇듯이 세운 채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곤 한다. 그러면 주변이 불현듯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간 보지 못했던 화초들을 문득 발견하기도 한다. 그만큼 바깥 풍경들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는 증거일 것이다.

가까이 있으므로 오히려 무심경해지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정서라 할지라도 이는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을 순간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일을 겪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매사 예민한 반응으로 살다 보면 더 큰 상처들이

주위에 잠복해 있음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관계로 말하면 너무 가까워도 탈이고 너무 멀리해도 탈이 난다. 맹목과 집착, 그리고 무관심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것은 결국 심리적 거리와 맞닿아 있는 관계지만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평정심이다.

필자는 이 평정심을 이태준(1904-1970)의 산문집 『무서록(無序錄)』에 수록된 「물」에서 찾곤 한다.

“물은 아름답다. 흐르는 모양,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거나 생각하면 이(물)의 맑은 덕, 남의 더러움을 씻어 줄지언정, 남을 더럽힐 줄 모르는 여진 덕이 이에 있는 것이다. 이를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을 맑힐 수 있고 이를 사귀일 때 얼마나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물은 보면 즐겁기도 하다. 이예겐 언제든지 커다란 즐거움이 있다. 여울을 만나 노래할 수 있는 것만이 즐거움은 아니다. 산과 산으로 가로막혀 답비는 일 없이 고요한 그대로 고이고 고이어나 중남 넘쳐 흘러가는 그 유유무언(悠悠無言)의 낙관(樂觀),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물은 성(性)스럽다. 무심히 흐르되 어별(魚鱗-물고기와 거북이)이 이의 품에 살고는, 밭, 과수원이 이 무심한 이로 인해 윤택하다.

아름다운 물, 기쁜 물, 고마운 물, 지자(智者) 노자(老子)는 일찍이 상선약수(上善若水-최상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라 하였다.”

여름은 흰 구름을 보면서 생을 반추하고 물을 통해서 삶을 배울 일이다.

社說

TK신공항 벤치마킹 광주 군공항이전 단초 만들까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조성중인 대구시 군위군을 방문해 성공적인 민간 통합공항 이전에 공동으로 협을 모으기로 했다. 민선8기 최대 상생 난제의 물꼬를 트기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3자 간 대화가 이달 중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주목받았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주민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자체 간 협치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대구광역시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가 비슷한 선례를 가진 군위군에 먼저 요청해 상사된 자리로 양측은 지자체의 역할, 지역민과의 소통의 필요성, 접근 교통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을 교두보로 군공항이전특별법 국회 통과 등 결실을 거둔 바 있다. 특히 강 시장은 김진열 군수와 사업 부지를 찾아 조감도를 통해 활주로, 소음완충지대 등 시설배치 계획을 살펴봤다.

그동안 민간·군통합공항 추진을 위해 광주시는 소음대책 토론회, 무안군 방문 설명회, 농촌 일손돕기, 전체 세대에 ‘악숙의 편지’ 발송 등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으로 ‘기부 대 양여’에 의한 차액 4천508억원에 자체 재원을 추가해 1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광주시는 전남도, 무안군과의 만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소음 피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여론을 변화시킬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득 없는 ‘빈손회담’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한 실정이다.

강 시장은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지역소멸을 막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꾸준한 신뢰를 구축해 마음을 열고,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신공항이라는 날개를 달고 소멸 위기를 넘어 명실상부한 공항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군위군의 민관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한 광주시가 이번엔 소기의 성과를 내길 바란다.

문화수도 위상 더 높이는 천재화가 피카소 기획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미술품을 만나볼 기회가 열렸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준높은 문화 여행을 하며 잠시라도 폭풍 썰는 폭염을 이겨낼 수 있다. 광주시민들이 이견회컬렉션 ‘피카소 도예’전을 주목하는 것이다.

여인 형상을 한 물병, 새 그림이 그려진 주전자, 사람 얼굴로 가득 찬 접시까지, 거대한 신진 연상케 하는 백색 전시장에 100여 점의 각양각색 도자들이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 거장 피카소의 도예는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며 역동적이다. 2021년 고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112점 가운데 107점이 복원전시 4관에서 9월 까지 대중에 선보이고 있다. 구성은 여인과 신화, 동물, 율리시, 얼굴, 투우 등 9개 주제의 섹션으로 이뤄졌다.

특히 피카소의 여인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의 뮤즈인 자를린 로크를 모델로 한 물병과 화병, 도조 작품들이 그것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율리시’에 대한 특별한

애정에서 보듯 ‘여인의 얼굴을 한 율리시’, ‘어린 율리시’ 물병 등도 이채롭다. 넓은 공간을 활용, 현대식 신진과 같은 구조물 위 작품 하나하나가 돋보이게 배치돼 관람 편의성을 향상한 연출 또한 돋보인다. ACC가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진행한 순회전으로 지난해 국립미술관 청주관에 이어 두 번째다. 국립미술관의 우수한 콘텐츠를 가까이서 감상하도록 기획돼 의미를 갖는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및 가족 단위 방문을 고려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해설도 곳곳에 마련했다.

파블로 피카소는 스페인 태생이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했다. 입체주의를 대표한 인물로 회화 외에도 조각과 판화, 도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20세기 예술 전반에 혁명을 일으키며 미술사의 흐름을 바꾼 천재 화가가 만든 거대한 상상의 공간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감히 비교불가의 전시회로, 문화수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시민들은 인류에 남긴 위대한 유산에 몰입할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기고



박우욱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금이 ‘골든타임’

다. 문제는 그 표현의 방법과 정도다. 무조건이다.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절차와 합리적 틀이 집단주의에 밀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공모에 반대하는 대학의 불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021년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 중 서부권의 편익 분석 항목의 일부 통계와 기준 적용이 잘못됐고, 그래서 이번 용역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수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2021년 용역은 의과대학 장소를 정하는 목적이 아니다. 정부에 전남의 의료 취약성을 설명하고 도내 어느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용역 결과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했다. 공모에 참여해 이런 부분을 함께 살피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도청 등 주요 기관이 과거 정치권의 입김으로 서부권에 많이 있었으니 이번의과대학은 전략적으로 동부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지역을 갈라치기 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행태다. 의과대학 유치를 경쟁하고 있는 서부권에서 수긍할 수 있을까? 대안 없이 공모를 반대하고 불안감을 높이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공모에 참여하면 의과대학이 서부권에 가는 걸까? 의과대학이 동부권에 꼭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 많은 명분이 지극히 얽려 수준이 이런 이유에 못 미치는 것이었을까? 동부권

의대 유치 문제는 순천시와 순천대학이 결정할 사안이 분명 아니다. 안타깝다.

정부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담화를 통해 전남의대 설립 절차를 제시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를 고집해 의과대학을 유치할 절호의 기회를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도민들의 생명권이 담보된 일이다. 좀 더 차분해지자. 냉정해지자.

전남 2곳에 의과대학을 동시에 유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없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요구대로 ‘한 곳을 정해 추천’해야 하고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파이나누기’를 피할 수 없는 시점이다. 전남 국립의과대학이라는 파이를 나눠 가질 권리가 양 대학에만 있지 않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고통받으며 30년을 기다려온 전남 도민들의 권리가 더 크고 소중한 것이다. 그동안 한 목소리로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땀을 흘린 도민들을 기억하자. 양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매몰되지 말고 전남 도민들의 열망을 생각하자.

최근에도 정부 관계 부처 역시 국회 답변을 통해 전남도의 신속한 대학 추천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양 대학이 공모에 참여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최우선을 도출해야 한다. 정치적 수사로 지역 갈등을 조장해 도민을 기망하면 안된다.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26년 전남도 국립의대 신규 입학 정원을 받아내기 위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다. 문제는 그 표현의 방법과 정도다. 무조건이다.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절차와 합리적 틀이 집단주의에 밀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공모에 반대하는 대학의 불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021년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 중 서부권의 편익 분석 항목의 일부 통계와 기준 적용이 잘못됐고, 그래서 이번 용역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수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2021년 용역은 의과대학 장소를 정하는 목적이 아니다. 정부에 전남의 의료 취약성을 설명하고 도내 어느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용역 결과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했다. 공모에 참여해 이런 부분을 함께 살피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도청 등 주요 기관이 과거 정치권의 입김으로 서부권에 많이 있었으니 이번의과대학은 전략적으로 동부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지역을 갈라치기 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행태다. 의과대학 유치를 경쟁하고 있는 서부권에서 수긍할 수 있을까? 대안 없이 공모를 반대하고 불안감을 높이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공모에 참여하면 의과대학이 서부권에 가는 걸까? 의과대학이 동부권에 꼭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 많은 명분이 지극히 얽려 수준의 이런 이유에 못 미치는 것이었을까? 동부권

독자투고

연간 2천만 건 이상의 신고처리 중임에도 그동안 112 경찰활동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법적 근거와 기반이 미비했다. 이에 따라 112경찰활동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112신고처리법은 2024년 7월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 첫째, 긴급조치권 마련으로 현 경직법 제7조를 보완하여 요건 완화, 조치범위는 확대해 급박한 112신고처리 현장에서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조치를 거부·방해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게 된다. 둘째, 긴급 현장 피난 명령권 명시로 현 경직법 제5조를 보완해 재해·재난 등 112신고 상황에 맞게 피난 요건을 규정해 경찰의 현장 통제력·장악력 강화가 목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 명령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셋째,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 및 상호 협업 강화 규정 명시로 기관 간 역할·책임 명확화로 향후 업무 관계 개선과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112신고처리법 상 범 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유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간 3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장난 신고를 근절하고 경찰력 등 낭비 방지, 국민의 안전 역할 충실,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됐다.

강력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바탕으로 한 112신고처리법은 지역경찰 권한 확대, 적극적인 현장 대응,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대응 집중도 강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 수호 및 생명보호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변병천·여수경찰서 대경도치안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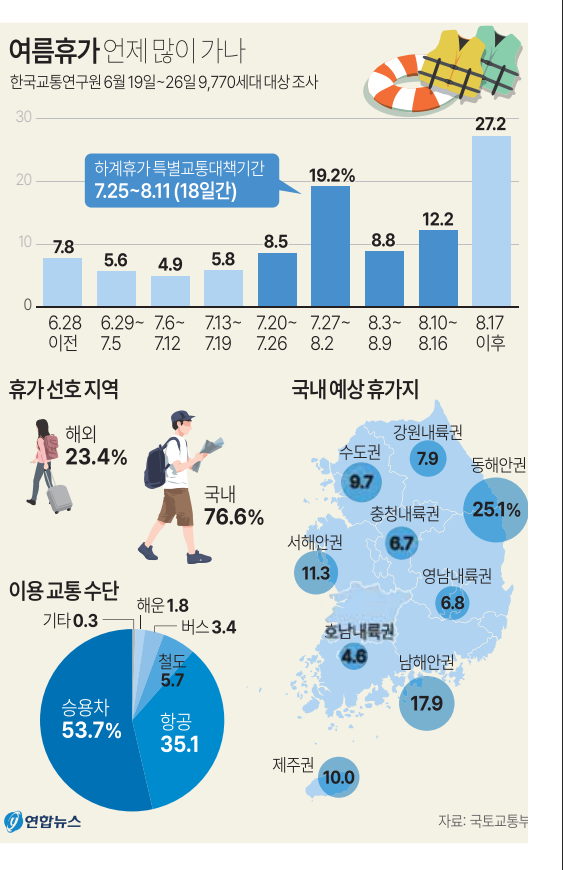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올여름 휴가여행 7월27일-8월2일 동해안이 가장 붐빌듯

올해 여름휴가 기간 국내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타고 동해안을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이 지난달 말 9천770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며, 국내·해외 여행 비율은 국내 76.6%, 해외여행 23.4%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비율은 전년 17.5%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휴가 여행 출발 예정 일자로 7월27일-8월2일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8월 10-16일(12.2%), 8월 3-9일(8.8%) 등이었다.

국내 여행 예정지는 동해안권(25.1%), 남해안권(17.9%), 서해안권(11.3%), 제주권(10.0%) 순이었다. 교통수단으로는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버스(7.0%), 항공(5.6%), 철도(5.2%), 해운(0.5%)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